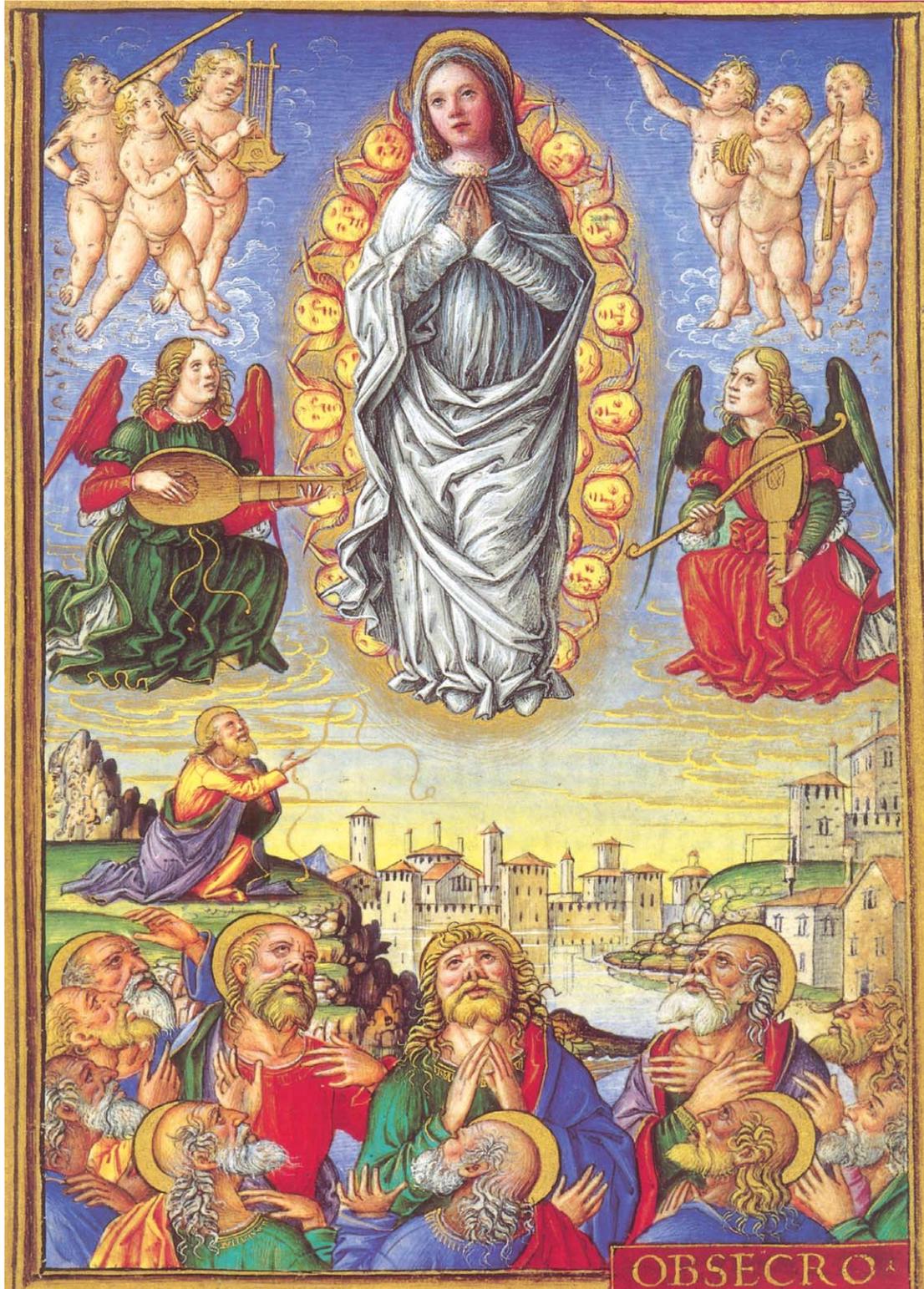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학교구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비라고 (Giovan Pietro Birago), <성모승천>, 1490년경, 채색삽화, 영국 국립 도서관, 런던, 영국

성화해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았던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아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로 오르고 있다. 천상에는 아기들과 천사들이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성모님의 승천을 환영하고 있다. 지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놀라운 표정으로 지켜 보고 있으며, 배경은 화가가 살았던 이탈리아 도시로 장식되어 있다.

2009년 ‘성모 승천 대축일’ 메시지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이사 32, 17)



주님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신다.
(시편 103, 6)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나라로 직접 올림을 받으신 것을 경축하는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인에게 큰 기쁨과 희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성모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늘 위험과 고통을 겪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항상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경축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된 평화입니다. 평화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도 세상의 평화를 간절하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정의의 결과이며 정의의 성과는 세상에 영원한 평온과 신뢰를 선사합니다(이사 32,17 참조). 이처럼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란 진리와 공정, 올바른 도리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정의를 실천하시고 억눌린 이들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십니다(시편 103,6 참조). 하느님 백성이며 지상의 나그네인 우리는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고 진리와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으로 흐를 수 있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통합이 절실한 때입니다.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 증오와 대립이 만연하지만 화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은 멀게만 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는 어느 한 집단만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몰두할 때 세상의 평화는 위태로워집니다. 다른 이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

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치, 사회, 경제의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국가 정책과 정치활동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소외되고 도태되는 이들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더 화려하고 더 큰 것을 쫓느라 우리 주변의 작은 이웃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은 정의와 도덕성의 기준에 따라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삶을 사는 서민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참된 정의의 실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일은 사회 지도자에게만 맡겨진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합니다. 신앙인들은 세상 안에서 평화와 정의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신앙인 가정 안에서부터 평화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부모님들은 삶의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 형제간의 우애로 평화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교회도 평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겸손하게 성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일생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충실한 응답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삶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처럼 자신보다는 이웃과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면 이 세상에 더 많은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극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모님의 승천을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큰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09년 성모 승천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입당송 묵시 12,1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10ㄱ나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화답송 시편 45(44),10.11.12.16(◎10나)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의 사랑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제2독서 1코린 15,20-27ㄱ

〈말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음 루카 1,39-56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영성체송 루카 1,48-49 참조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네.



· 감사송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뱃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
님께서는 마리아께 무덤의 부패를 겪지 않게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